



## “자기 목소리를 내놓아라”

5월 28일 전국 100여 선원 하안거 결제

봉암사 태고선원 등 전국 100여 선원은 5월 28일(음 4.15) 오전 불기 2554년 하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하고 100일 동안의 정진에 돌입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안거에 2200여 명의 스님들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8월 24일(음 7.15) 해제한다. 이날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 태고종 종정 해초 스님은 하안거 결제 법어를 내려 수행을 격려했다.

문경 대승사(주지 월산)에는 28일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 종회의원 무애 스님 등 30여 스님이 안거를 시작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결제법어에서 부처님과 문수보살의 일화를 예로 들며 “세존께서 법자에 오르자마자 내려오신 뜻이 무엇인지 결제 대종은 하안거 내내 잘 참구해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전 스님은 또 “문수처럼 똘이 한마디 자기 목소리를 내놓을 수 있도록 90일 동안 용맹심을 가지고 열심히 정

진해야 할 것”이라며 “조전타착(焦煎打着)하니(연저동(連底凍))이로다 [뜨거운 벽돌로 찌는데 밑바닥까지 얼었구나]”라는 법어를 내렸다. 태고종 종정 해초 스님은 “해 뜨고 달 지듯이, 꽃이 피고 열매 떨어지듯이 경계를 당했을 때 평화롭고 담담하려면 있을 때 있고 설 때 서면 서 부지런히 참구하라”고 격려했다. 태고종은 순천 선암사 칠전선원과 금둔선원 등에 120여 스자들이 방부를 들이고 정진에 들어갔다. 이상연 기자

## “4대강 공사현장서 용맹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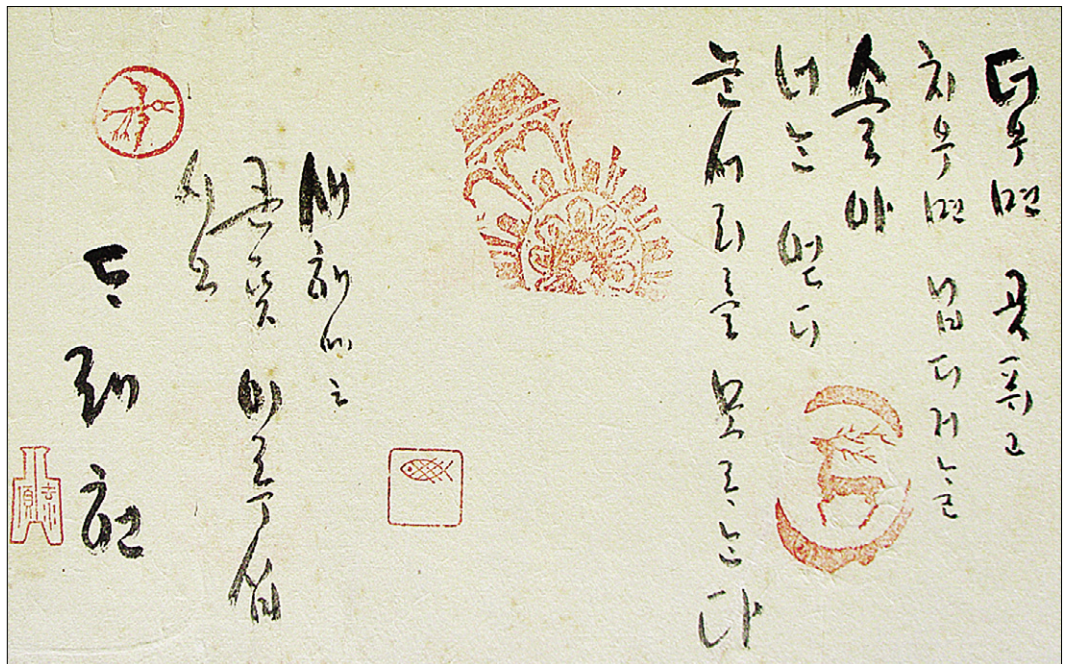
선원수좌회 성명... 4대종단 대표들도 종단 촉구

정부가 4대강 공사를 전담할 군부대까지 창설해 사업을 강행키로 한 가운데, 불교 가톨릭 원불교 개신교 등 4대종교 대표자가 기도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조계종 선원수좌 2000여 명도 하안거 결제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대원·현산·지환, 이어 수좌회는 5월 27일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행할 경우 2000여 수좌와 사부대중이 4대강 공사현장에서 용맹정진으로 4대강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좌회는 4대강 반대와 정부 비판에 앞서 참회로 성명을 시작했다. 수좌회는 “무정설법의 이치를 대중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한 것을 참회하

고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를 하안거 회두로 삼아 용맹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좌회는 “사회문제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행에만 전념해온 남자들은 현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찬 반민주적 정책집행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암울한 소식이었다”고 토로했다. 수좌회는 “홍수예방과 오염정화라는 미명아래 강행되는 4대강 개발은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물론 국민과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켜 소통을 차단하고 있다”며 △화해와 소통의 상생정치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과 국민을 섬기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앞선 25일,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대표자들은

서울 성곡회 대성당 프란시스코에서 4대강 사업 종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성 스님,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김근상 주교, 원불교 중앙교구장 김현 교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전병호 목사,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 대리로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박정우 신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4대 종단 대표자들은 결의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뜻 생명회 근원인 ‘강의 마음’을 생각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모두를 살리는 길을 냉철하게 검토하고 연구해 줄 것을 제안한다”며 “4대강 개발이 멈출

때까지 종교와 신앙차원에서 반대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성 스님은 각 종단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다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볼 수 없다. 뜻 생명 보호를 위해 종교인들이 적극 나서야”라고 말했다. 이어 불교 환경연대 집행위원장 현각 스님은 “탐욕에 눈이 멀어 생명을 경시하는 위정자들이 부끄럽다. 국토의 기형을 초래하고 전통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해 간다면 엄청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여주 신특사 남한강변 여강선원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사업 공사 종단을 촉구하는 4대 종교인 기도회가 열렸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3월 입적한 법정 스님이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글과 그림 30여 점 보성 대원사(주지 현정) 내 티벳박물관에서 6월 20일까지 공개된다. 사진은 현장 스님에게 보낸 편지로 고산 윤선도의 ‘오우가’ 중 소나무 부분을 인용한 후 ‘새해에는 큰 뜻 이루십시오’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 서울선원 개원... 4대강 기도 입재

서울 중심가에 4대강 생명살림을 위한 기도도량 서울선원이 문을 열었다. 이날 개원식 후 선원장 지관 스님은 4대강 생명살림을 위해 28일간 단식기도를, 대중은 21일간 참회정진 기도를 입재했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5월 25일 서울 조계사에서 서울선원을 개원했다. 행사에는 선원장 지관 스님(김포 용화사 주지), 여주 여강선원 선원장 수경 스님(화계사 주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퇴휴 스님, 공주 금강

### 서울선원 개원... 4대강 기도 입재

선원 대책위원회 해우 스님,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주경 스님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양재성 목사, 천주교 환경연대 조해봉 신부, 집행위원장 서상진 신부 등이 참석했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개원 취지에 대해 “서울선원은 전 국민과 모든 불자들에게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한 진상을 정확히 알리고 합리적 방식으로 4대강 사업이 다루어질 때까지 종교·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해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연 기자

### 국토해양부 제안 생색내기 비판

국토해양부가 최근 종교환경단체와 언론사 등에 제안한 4대강 사업 관련한 토론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5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 공문을 보내 △생방송 공개토론회 진행 △홍수와 가뭄, 생태, 수질, 경제성 및 추진과정, 문화재 등 5가지 주제 선정 △6·2 지방선거 전 토론회 추진 등을 기본원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국토부로부터 수용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상연 기자

천주교환경연대(삼일대표 조해봉)도 5월 7·26일 국토부에 전문가를 포함한 토론 개최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신교·천주교와는 달리 불교계는 공개토론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불교환경연대(삼일대표 수경)는 “일을 벌여놓은 사람들이 수습하라는 국토해양부 식의 공개토론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성명서 발표 등의 반대 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무소유’

거제 파라미타·좋은벗 토론회 열어

청소년들이 법정 스님이 실천한 ‘무소유’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거제지회(회장 서명희)와 시민모임 좋은벗(대표 박기륜)은 5월 19일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법정 스님 <무소유>를 읽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파라미타청소년협

회 거제지회가 거제지역 11개 학교 학생, 교사, 시민에게 법정 스님 <무소유> 200권을 무료로 배포하고 마련한 자리로 거제, 해성, 옥포고 학생 20여 명과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의 무소유에 대한 해석과 이해의 폭은 다양했다. “필요한 것은 가지돼 인연이 다하면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김은강

(옥포고 2)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것은 비워야 한다.” 김기림(옥포고 2) “법정 스님의 위대함은 글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에 있었다.” 장하인(해성고 2)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자비 실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전명훈(해성고 1) 무소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학생도 있었다. “무소유의 삶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김보람(거제고 2) 이날 우수독서 토론자로 선정된

일반인 참가자 이근화(거제시청 사회복지과 근무)씨는 “그동안 고정관념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그 속에서 나의 갈등과 오해가 생긴 것을 스님의 책을 통해 알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거제불교사암연합회 사무국장 하담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좋은 불서를 읽게 하고, 이를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한 행사”라고 말했다. 같은 날 파라미타 거제지회는 거제도서관에 법정 스님의 저서 26권을 기증했다. 이상연 기자

### 조계종 해외교구법 입법예고

총무부장이 교구장 겸직

조계종이 종단 차원의 해외포교와 한국불교 국제화를 위해 해외특별교구 설치를 준비 중이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5월 14일 전문 26조, 부칙 2조로 구성된 ‘해외특별교구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안에 따르

면, 해외특별교구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해외특별교구’로 하고 해외교구 사찰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00국 00사’로 하며, 국내 사찰등록 절차에 준하도록 했다. 해외교구 본사는 총무원 총무부에 두어 교구장은 총무부장이 겸직한다. 조동섭 기자

필요에 따라 지역별·국가별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총무원은 일차적으로 아시아, 미국 동부·서부, 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에 사무소를 둘 방침으로 알려졌다. 해외교구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20인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입법예고된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11일까지 총무원 총무부로 하면 된다. 조동섭 기자

▶12 선지식·보광 스님 ▶4 인터뷰·능인 스님 ▶7 현장·4대종단 기도회 ▶11 강의·향봉 스님

##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흥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세겨 드립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88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